



이유진 국어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9 서울시 7급 국어(B책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박문각
이유진 스피르타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스피르타 실전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문풀 올인원, 고시동네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경도) EBS 수능특강 사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할다[할따]
- ② 밭게[밭:게]
- ③ 엇겨나[엇겨나]
- ④ 맑고[막꼬]

★ 정답: ④ -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 된소리되기

★ 정답 해설:

‘겹받침 ‘ㄹ, ㄹ,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 규정과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 ㅌ), ㄷ(ㄷ, ㅌ, ㅌ, ㅌ),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맑고’는 겹받침 ‘ㄹ’에서 ‘ㄹ’과 뒤에 연결되는 어미 ‘-고’가 결합하여 [막꼬]가 아니라 [말꼬]로 발음한다.

★ 오답 해설:

① ‘겹받침 ‘ㄱ’, ‘ㄴ’, ‘ㄹ, ㄹ, ㅍ’, ‘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0항과 ‘어간 받침 ‘ㄹ,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5항에 따라 ‘할다’의 겹받침 ‘ㅍ’에서 ‘ㄹ’이 대표음이 되고,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과 결합하여 [할따]로 발음한다.

② ‘겹받침 ‘ㄱ’, ‘ㄴ’, ‘ㄹ, ㄹ, ㅍ’, ‘ㅁ’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밭-’은 자음 앞에서 [밭]으로 발음하고, ‘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 규정에 따라 ‘밭-’은 자음 앞에서 [밭:]으로 발음하고, ‘어간 받침 ‘ㄹ,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5항에 따라 [밭:게]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겹받침 ‘ㄹ, ㄹ,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 규정과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 ㅌ), ㄷ(ㄷ, ㅌ, ㅌ, ㅌ),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라 ‘엇겨나’는 겹받침 ‘ㄹ’에서 ‘ㄹ’과 뒤에 연결되는 ‘ㄱ’이 결합하여 [엇겨나]가 적절하다.

문 2. 밑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나는 영수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다.
- ② 영수가 한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 ③ 나는 영수가 애쓴 사실을 알고 있다.
- ④ 영수가 들은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정답 해설:

‘영수가 애쓰다’라는 절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와 결합하여 ‘사실’을 수식하는 동격 관형절로 쓰였다. 이러한 명사류 ‘소문, 생각, 주장, 제안, 사실, 인상, 기억, 일’ 등들은 문장에서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용이 되는 동격 관형절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우월한 문법·규정 p. 273)

·관계 관형절: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과 그 관형절 안의 문장 성분이 일치할 때 그 성분을 생략한 관형절이다.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한 성분(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되는 경우이다. 어떤 명사 앞에서 서든 쓰일 수 있다.

예)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나의 활발한 성격이 부럽다.

엄마가 내가 읽던 만화책을 가져가셨다.

도서관은 자습을 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갑시다.

은영이가 먹은 과자는 불량 식품이었다.

내가 태어난 1988년에 올림픽이 개최하였다.

한영이가 그린 풍경화가 대회에서 1등으로 뽑혔다.

섬 주위에는 옛날의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널려 있다.

·동격 관형절: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명사류(‘소문, 생각, 주장, 제안, 사실, 인상, 기억, 일’ 등)들은 문장에서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용이 되는 동격 관형절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나는 영수가 매우 아팠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낙엽이 떨어지는 광경이 슬프구나.

너희들, 철수가 메달을 땀다는 소식 들었니?

나는 그녀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오답 해설:

① ‘영수가 (음식을) 만들다’라는 절에서 목적어(음식)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하여 ‘음식’을 수식하는 관계 관형절이다.

② ‘영수가 (질문을) 하다’라는 절에서 목적어(질문)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하여 ‘질문’을 수식하는 관계 관형절이다.

④ ‘영수가 (소문을) 듣다’라는 절에서 목적어(소문)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하여 ‘소문’을 수식하는 관계 관형절이다.

문 3.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오겠다.
-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먹겠다.
-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
-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통사론 - 시제
★ 정답 해설:
 '자기가 가겠다고 하였다'에서 '-겠-'은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 의지(의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고 미래 시제 '-겠-' (우월한 문법·규정 p. 279)

* 미래 시제 '-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말 속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추정(추측)의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도)의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분명히 그러리라는 확신(강조)의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 어서가자. 학교 늦겠다.(미래 추정)
 이곳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면 나는 장차 네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겠다.(미래 의도)
 이 공연장은 관객이 2천 명은 들어가겠다.(추정, 추측)
 야, 나라면 그 일 벌써 했겠다.(추측, 추정, 의지)

★ 오답 해설:
 ① '조만간 비가 오겠다'에서 '-겠-'은 미래 추정(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지금쯤 철수가 ~ 먹겠다'에서 '-겠-'은 현재 추정(추측)의 의미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④ '~하면 10시쯤에 도착하겠구나'에서 '-겠-'은 미래 추정(추측)의 의미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문 4.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옐로카드(yellow card), 스태프(staff), 케이크(cake)
-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 ③ 냅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렛(chocolate)
-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 정답: ① - 어문규정 - 외래어 표기법
★ 정답 해설:
 '옐로카드(yellow card)'의 '옐로'는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8항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 [auə]는 '아워'로 적는다.'에 따라 '옐로우'가 아닌 '옐로'로 표기한다.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항 3.에 따라 스태프(staff), 케이크(cake)는 옳은 표기이다.
★ 오답 해설:
 ② 가디건(cardigan)은 거센소리에 주의하여 '카디건'으로 표기해야 하고, 뷔페(buffet)는 프랑스어에서의 'u'는 대개 '기'로 표기한다는 원칙에 따라 맞는 표기이다. 또한 캐러멜(caramel)은 '나'나 '고'로 발음하기 쉬우나 '기'로 발음하는 것에 유의한다.
 ③ 냅킨(napkin)은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옳은 표기이다. 점퍼(jumper)는 점퍼 또는 잠마로 표기할 수 있고, 초콜렛(chocolate)은 '초콜릿'이 옳은 표기이다.
 ④ 팡파레(fanfare)는 '팡파르'가 옳은 표기이다.

문 5.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혼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풋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퍼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① ㉠ ② ㉡ ③ ㉢ ④ ㉣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이 시는 깃발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펠릭스는 '깃발'은 이상을 염원하는 마음을, '풋대'는 깃발이 묶여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한다. '아우성', '손수건', '마음'은 모두 깃발을 비유한 표현이므로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단어는 '풋대'이다.
★ 오답 해설: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의 '아우성'은 깃발이 펠릭스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푸른 해원'이라는 이상을 향해 혼드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은 깃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슬프고도 애달픈'은 풋대에 묶여 이상을 동경하나 닿을 수 없는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깃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작품 해설: 유치환, <깃발>
 • 해제: 이 시는 '깃발'을 제재로 하여 이상에 대한 동경과 좌절에서 오는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바람에 펠릭스는 깃발은 '푸른 해원'을 동경하면서 그곳으로 가길 염원한다. 그러나 깃발은 근본적으로 '풋대'에 묶여 있기에 '푸른 해원'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깃발의 숙명인 것이다. 이는 어디론가 가고자 하나 갈 수 없고, 갈 수 없으면서도 계속 가려고 하는 인간 존재의 양면성과 실존적 한계를 표상한다. 그래서 작가는 깃발을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고 지칭했던 것이다.
 • 주제: 이상에 대한 동경과 좌절에서 오는 비애감
 • 구성: 01~03행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
 04~06행 깃발의 순수한 열정과 애수
 07~09행 동경과 좌절의 아픔

문 6.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 ③ 두리몽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 ④ 살책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 정답: ㉔ - 어문규정 - 표준어 규정
★ 정답 해설: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어떤 행동이나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은 '여태', '입때'가 옳은 표기이고 '여직'은 비표준어이다.
★ 오답 해설:
 ① 기존에는 '마, 마라'만 표준어였으나 2015년 개정으로 인해 '말아, 말아라'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③ '모나거나 튀지 않고 등그스름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두리뭇실하다'는 표준어이다. '두루뭇술하다'와 '두리뭇실하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④ '주책없다'만 기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책'에 '이다'가 붙은 '주책이다'를 2017년 개정으로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어근 '주책'에 접사 '-스럽다'가 결합한 구성 역시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주책맞다'도 표준어이다.

문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㉔동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다.
-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 정답: ㉔ - 이론편 - 형태론 - 품사
★ 정답 해설: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에서 '있다'는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를 의미하는 형용사이다.
참고 '있다'를 동사로 쓰는 경우의 의미(이 외에는 형용사)
 ㉑ (사람,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㉒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㉓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㉔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㉕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㉖ (주로 동사 뒤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 오답 해설:
 ①, ④ '나는 오늘 집에 있다.'와 '~그냥 집에 있자.'에서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를 의미하는 동사이다.
 ③ '~가만히 있어라.'에서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이다.

문 8.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 ① 붓엇뺑-공붓벌레 ② 마긋간-인삿말
- ③ 공깃밥-백깃장 ④ 도맏값-머릿털

★ 정답: ㉔ - 이론편 - 형태론 - 사이시옷의 표기
★ 정답 해설:
 '마구간'은 [마:구간]으로 뒤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만 '마구(馬廐)'와 '간(間)'이라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인삿말'은 한자어 '인사(人事)'와 고유어 '말'의 합성어이기는 하나, 발음이 [인사말]이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사이시옷을 쓸 이유가 없으므로 '인삿말'이라고 적는 것이 옳다.
참고)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 (우월한 문법·규정 p. 165)

사이시옷 표기의 발음·형태 조건

- 발음 조건
 -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소리로 나는 것
 - 폐쇄시키는 음([ㄷ])이 뒤의 'ㄴ, ㄹ'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것
 - 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폐쇄시키는 음([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
- 단, 뒤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다.
- 형태 조건
 - 단일어나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외래어와 결합될 경우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피자집○, 피자집× / 팥크림○, 팥크림×)
 - 한자어+한자어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 6개 (긋간, 뺏간, 찻간, 횃수, 숫자, 셋방)
 - 앞 형태소가 모음으로 끝남(=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비어 있음).

★ 오답 해설:
 ① '붓엇뺑'은 합성어의 뒤 단어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붓어뺑'이 옳은 표기이다. '공붓벌레'는 한자어 '공부(工夫)'와 고유어 '벌레'의 합성어이며 그 발음이 [공부벌레]이므로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붓벌레'라고 사이시옷을 받쳐 쓰는 것이 옳다.
 ③ '공깃밥'은 한자어 '공기(空器)'와 고유어 '밥'의 합성어이고 그 발음이 [공기밥]이므로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깃밥'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쓰는 것이 옳다.
 '백깃장'은 '백지(白紙)'와 '장(張)'이라는 한자어와 한자어 결합의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이 쓰일 수 없다. 따라서 '백지장'이 옳은 표현이다.
 ④ '도맏값'은 한자어 '도매(都賣)'와 고유어 '값'의 합성어이고 그 발음이 [도매값]이므로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도맏값'이라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것이 옳다.
 '머릿털'은 합성어의 뒤 단어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머리털'이 옳은 표현이다.

문 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 습니다. (㉠)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 지요. (㉡)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 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 | | |
|--------|------|------|------|
| ㉠ | ㉡ | ㉢ | ㉣ |
| ① 그런데 | 그랬더니 | 그래 | 그러니까 |
| ② 그런데 | 그래 | 그랬더니 | 그러니까 |
| ③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래 | 그러니까 |
| ④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러니까 | 그래 |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접속어

★ 정답 해설:

㉠의 앞뒤 문장은 '나'가 아저씨가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었더니 아저씨가 '나'의 기대대로 예배당에 와있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에는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는 연결 어미인 '그랬더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뒤의 문장에서 '나'는 아저씨가 어른임에도 아이들처럼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의아해하며 아저씨에 대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앞뒤 문장을 정리하면, 아저씨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나'가 손을 흔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래('그리하여'의 준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는 '그래서'와 같이 뒤에 자신의 행위가 나올 때 쓰인다.

㉣ 아저씨는 내가 손을 흔들자 고개를 숙였다. 따라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니까'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는 뒤에 다른 이의 행위가 나올 때 쓰인다.

★ 작품 해설: 주요설, <사랑손님과 어머니>

- 갈래 : 단편 소설
 - 성격 : 서정적, 심리적
 - 배경 : ① 시간 - 1930년대 ② 공간 - 어느 작은 마을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주제: 남편의 친구인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은근한 애정과 전통적 인습(因襲)사이의 갈등
 - 구성:
- [발단] 어머니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저씨가 하숙을 들.
 [전개] 나는 아저씨와 친해지며 좋은 반찬과 달걀을 마음껏 먹게 됨.
 [위기] 아저씨는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어머니는 항상 수줍어함.
 [절정] 내가 거짓말로 준 꽃으로 인해 어머니는 마음이 흔들림.
 [결말]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고 아저씨는 떠나고, 어머니는 꽃을 나에게 주며 갖다 버리라고 함.

문 10.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꺾꺾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끼룩거리면서'는 '꺾꺾대면서'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현실(애국심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대한 조롱과 야유, 비아냥거림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화자는 흰 새 떼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대한 자신의 냉소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는 마지막 구절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따라서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시에서 찾을 수 없다.

③ ㉠은 화자가 세상을 대하는 냉소적 시선이 언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나므로, 현실에 타협하고자 느끼는 회한과는 거리가 있다.

④ ㉠에서 세상을 비웃는 냉소적 태도는 찾을 수 있으나, 좌절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는 찾을 수 없다.

★ 작품 해설: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해야만 했던 1980년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화면 속에 나오는 새들의 비상을 보면서 화자는 새들이 이 세상 밖 어디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우리'도 새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밖 어디로 떠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하지만 화자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고 이내 체념하고 절망한다. 이러한 모습은 획일화된 질서로 자유를 억압했던 1980년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주제: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과 좌절감, 억압에 대한 비판과 냉소

문 11.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 나게 되면 그에 맞도록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의미론 - 어휘의 변천

★ 정답 해설:
 <보기>의 ㉠은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된 경우이다.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만 사용되었으나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부르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의미가 확대된 경우이다.

★ 오답 해설:
 ② 고유어인 ‘통닭’이 외래어인 ‘치킨’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치킨’을 ‘닭고기튀김’으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③ ‘아점’은 아침 겸 점심으로 먹는 밥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기존의 어휘를 합쳐 줄인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④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휘가 소멸하는 경우이다. ‘마마’는 무서운 질베이었던 ‘천연두’에 대한 완곡어였다.

참고) 의미 변화의 유형 (우월한 문법·규정 p. 108)

(1) 의미의 확대: 이미 존재하는 말의 의미를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
 거례: 종친(宗親) ⇨ 동포(同胞), 민족
 시간: 종이로 만든 갑 ⇨ 가죽이나 형겔 따위로 자그마하게 만든 물건
 사모님: 스승의 부인 ⇨ 남이나 직장 상사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
 박사: 최고의 학위 또는 학위를 딴 사람 ⇨ 어떤 분야에 정통한 사람은: 백(百) ⇨ 모든
 방석(方席): 네모난 깔개 ⇨ 둥근 것까지 포함

(2) 의미의 축소: 의미가 변화하여 지시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범위가 원래보다 좁아지는 것
 중생: 모든 생명체 ⇨ 사람
 계집: 여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 ⇨ 여성의 낮춤말
 놈: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 ⇨ 남성의 낮춤말
 미인(美人): 남녀에 모두에게 쓰임. ⇨ 여자에게만 쓰임.
 얼굴: 몸 전체, 혹은 형상 ⇨ 안면
 짓(짓): 모양과 동작에 모두 쓰임. ⇨ 동작에만 쓰임.
 매(매): 진지, 밥 ⇨ 제사 때 올리는 진지로만 쓰임.

(3) 의미의 이동: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고 단순히 다른 의미로 바뀐 것
 어리다: 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씩씩하다: 엄하다 ⇨ 용감하다
 배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 선망의 대상
 수작(酬酢): 술잔을 주고받음. ⇨ 말을 주고받음.
 젊다: 나이가 어리다. ⇨ 혈기가 한창 왕성하다.
 외도: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 ⇨ 부도덕한 의미
 어엿보다: 불쌍하다 ⇨ 예쁘다
 하다: 많다, 크다 ⇨ (동작을) 하다

문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 ① 목청, ‘ㅇ’과 ‘ㅎ’
- ② 윗잇몸, ‘ㄴ’과 ‘ㄷ’
- ③ 셤입천장, ‘ㄱ’과 ‘ㅋ’
-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ㅆ’

★ 정답: ② -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훈민정음

★ 정답 해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조음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과 ‘선지의 글자가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를 따랐다는 것이다. ‘조음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은 두 글자가 소리를 내는 위치가 같다는 의미이다.
 ‘ㄴ’과 ‘ㄷ’은 두 글자 모두 조음 위치가 윗잇몸’으로 동일하며, ‘ㄴ’이 기본자이고, ‘ㄷ’이 가획자로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시이다.

★ 오답 해설:
 ① ‘ㅇ’과 ‘ㅎ’은 기본자와 가획자의 조건은 충족하나 ‘ㅇ’은 목청소리가 아닌 여린입천장 소리이다.
 ③ ‘ㄱ’과 ‘ㅋ’은 기본자와 가획자의 조건은 충족하나 이 두 글자는 그 조음 위치가 셤입천장이 아니라 여린입천장이다.
 ④ ‘ㅅ’과 ‘ㅆ’은 기본자와 가획자의 조건은 충족하나 ‘ㅅ’은 조음 위치가 윗잇몸이고 ‘ㅆ’은 셤입천장이다.

참고)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우월한 문법·규정 p. 38)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셤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안 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참고) 훈민정음 초성 17자 (우월한 문법·규정 p. 410)

오음(五音)	기본자(基本字)	가획자(加劃字)	이체자(異體字)
아음(牙音)	ㄱ	ㅋ	ㅇ
설음(舌音)	ㄴ	ㄷ, ㄸ	ㄹ
순음(唇音)	ㅁ	ㅂ, ㅃ	
치음(齒音)	ㅅ	ㅈ, ㅊ	ㅆ
후음(喉音)	ㅇ	ㅎ, ㆁ	

문 13.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 명사]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동사]

★ 정답: ④ -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의 통용

★ 정답 해설:

‘혀가 굳다’의 ‘굳다’는 현재형을 반영하였을 때 ‘굳는다’라고 활용하며, 관형사형으로 하면 ‘굳는다, 굳는’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람됨이 굳고’의 ‘굳다’는 현재형 종결 표현이나 관형사형으로 활용해 보면, ‘사람됨이 굳는다’, ‘사람됨이 굳고’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굳다’는 형용사이므로 ‘굳다’, ‘굳은’ 등으로 활용한다.

참고) 품사를 통용하는 ‘굳다’

굳다 [I] 「동사」 「2」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II] 「형용사」 「3」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

참고)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우월한 문법·규정 p. 108)

•관형사형 어미[‘-는/-(-으)ㄴ’]를 모두 쓸 수 있으면 동사이고, ‘-(으)ㄴ’만 쓸 수 있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는, 먹은, 먹던, 먹을(○) / 예쁘는(×) / 예쁜, 예쁘던, 예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으)ㄴ’]를 쓰면 동사이고, 기본형으로 현재를 표현하면 형용사이다.

예) 먹는다, 간다(○) / 예쁘는다, 예쁘다(×) / 예쁘다(○)

•명령형 어미[‘-어/-어라, -게, -오, -(으)시오, -어, -어요, -시어(세/서)요’], 청유형 어미[‘-자, -세, -(으)시다, -어, -어요’]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어라, 먹자(○) / 예뻐라(×) ⇨ 예뻐져라(○), 예뻐자(×) ⇨ 예뻐지자(○)

•의도(‘-려’)와 목적(‘-러’)의 연결 어미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앉으려 한다, 먹으려 간다(○) / 예쁘려 한다(×) ⇨ 예뻐지려 한다(○), 예쁘려 간다(×) ⇨ 예뻐지려 간다(○)

•동작상의 보조 용언 ‘-고 있다’, ‘-아/어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고 있다, 앉아 있다(○) / 예쁘고 있다, 예뻐 있다(×)

•소망의 보조 용언 ‘-고 싶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고 싶다(○) / 예쁘고 싶다(×) ⇨ 예뻐지고 싶다(○)

★ 오답 해설:

① ‘오늘’은 명사와 부사로 통용되는 단어이다. ‘오늘’ 뒤에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오늘’ 뒤에 용언이 오면 ‘부사’이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의 ‘오늘’은 뒤에 조사가 있으므로 명사이다.

‘오늘 할 일’에서의 ‘오늘’은 뒤에 ‘하다’의 활용형인 ‘할’이 있으므로 부사임을 알 수 있다.

② ‘만큼’은 의존 명사와 조사로 통용되는 단어이다.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체언 다음에 오는 ‘만큼’은 조사이다.

‘먹을 만큼’의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먹을’의 수식을 받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철수만큼’의 ‘만큼’은 체언인 ‘철수’ 바로 뒤에 붙어 쓰이므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③ 접미사 ‘-적’은 명사, 관형사, 부사를 만든다. 접미사 ‘-적’이 붙은 말 뒤에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접미사 ‘-적’이 붙은 말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뒤에 오는 용언이나 부사를 수식하면 부사이다.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에서의 ‘비교적’은 뒤에 체언 ‘교통’이 있어 관형사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비교적’이 수식하는 단어는 ‘교통’이 아닌 ‘편리하다’이므로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의 ‘비교적’은 부사이다.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에서의 ‘비교적’은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비교적인’으로 활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문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판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① ㉠ ② ㉡ ③ ㉢ ④ ㉣

★ 정답: ① - 독해(문학) - 현대 문학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검은 물’, ‘구름’, ‘소나기’는 모두 춘향이 죽어서 변하게 될 모습들로 언급되었다. 또한 윤희 사상에 따라, ‘물-구름-소나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화자(춘향)가 ‘도련님’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무’는 춘향과 도련님이 처음 만난 공간이자, 임의 안녕을 바라며 비유한 사물이다. 따라서 ㉠이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해설:

② ‘검은 물’은 죽은 춘향의 변신을 의미하여 ‘구름’, ‘소나기’와 의미하는 바가 유사하다.

③ ‘구름’은 죽은 춘향의 변신을 의미하며 ‘검은 물’, ‘소나기’와 의미하는 바가 유사하다. 또한 ‘검은 물-구름-소나기’를 통해 윤희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소나기'는 죽은 춘향의 변신을 의미하며 '검은 물', '구름'과 의미하는 바가 유사하다. 한편, 끝내 '도련님'에게 퍼부어질 춘향의 격렬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 작품 해설: 서정주, <춘향 유문(春香遺文)>

- 해제: <춘향전>을 제재로 하여 서정주 특유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대화체의 유서 형식을 띠고 있으며 부드러운 여성적 어조 속에 춘향의 간절한 영원이 드러난다. 화자 춘향은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사랑을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여인의 정절이라는 유교의 전통적인 덕목과, 불교적인 윤회 사상이 어우러져 있다.
- 주제: 시공(時空)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문 1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바깥 즌 찌개를 다시 끓였다.
-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노라네.
- ③ 앉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 정답: ③ - 이른 문법 - 형태론 - 용언의 활용

★ 정답 해설:

밑줄 친 '곧바라야'의 기본형은 형용사 '곧바르다'로, 어간 '곧바르-'에 모음 어미가 오면 모음 어미 앞에서 '르'가 '르'로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따라서 '곧바라야'가 적절한 표기이다.

참고) 용언의 불규칙 활용 (우월한 문법·규정 p. 111)

구분	명칭	내용	용례	비교 (규칙 활용-용례)
어간 훼손	'ㄷ' 불규칙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 로	묻[問] + 어 ㄷ 묻어 실 + 어 ㄷ 실어	묻[埋] + 어 ㄷ 묻어 얻 + 어 ㄷ 얻어
	'ㅅ' 불규칙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깃 + 어 ㄷ 지어 잇 + 어 ㄷ 이어	벗 + 어 ㄷ 벗어 씻 + 어 ㄷ 씻어
	'ㄴ' 불규칙	'ㄴ'이 모음 어미 앞에서 'ㅇ' 우'로	듭 + 아 ㄷ 도와 굽[鬮] + 어 ㄷ 구워	잡 + 아 ㄷ 잡아 굽[曲] + 어 ㄷ 굽어
	'르' 불규칙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르' 르'로	빠르 + 아 ㄷ 빨라 누르 + 어 ㄷ 눌러	따르 + 아 ㄷ 따라 치르 + 어 ㄷ 치러
'우' 불규칙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푸 + 어 ㄷ 퍼	주 + 어 ㄷ 주어/줘	
어미 훼손	'러'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어'가 '러'로	이르[至] + 어 ㄷ 이르러 누르[黃] + 어 ㄷ 누르러	치르 + 어 ㄷ 치러
	'어' 불규칙	어간이 '하'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아'가 '어'로	하 + 아 ㄷ 하여	가 + 아 ㄷ 가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달/다 + 오 ㄷ 다오	주어라
어간과 어미가 함께 훼손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 아'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하 는 현상	하얗 + 아서 ㄷ 하에서 파랗 + 아 ㄷ 파래	좋 + 아서 ㄷ 좋아서 낱 + 아 ㄷ 낱아

★ 오답 해설:

- ① 밑줄 친 '즌'의 기본형은 동사 '졸다'로 '어간 끝 받침 'ㄷ'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오, -르'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는 'ㄷ'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따라서 '즌'은 옳은 표기이다.
- ② 밑줄 친 '노라네'의 기본형은 형용사 '노랗다'로 'ㅎ'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따라서 '노라네'는 옳은 표기이다. 다만, 2015년 개정에 따라 'ㅎ' 불규칙 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하는 경우,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한 '노라네'와 탈락하지 않은 '노랑네'를 모두 인정한다.
- ④ 밑줄 친 '저러나'의 기본형은 형용사 '저렇다'로 모음 어미와 만났을 때 'ㅎ' 불규칙 활용을 하여 '저러'로 쓴다. 다음으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 '-나'와 결합하였을 때는 '저러나'로 쓴다.

문 16.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1>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보기2>
(가)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레)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 ① (가)-(나)-(라)-(레)
- ② (가)-(레)-(나)-(라)
- ③ (라)-(가)-(나)-(레)
- ④ (라)-(나)-(가)-(레)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배열

★ 정답 해설:

<보기 1>에서는 구글의 독감 관련 검색어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가): 독감 관련 단어 검색량을 통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독감 관련 검색어 연구의 결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시 말해'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으므로 (가) 앞 부분에 독감 관련 검색어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 추론 가능하다. 따라서 <보기 1> 뒤에 바로 (가)가 올 수 없다. → 선지 ①, ② 탈락
(라): '그 결과'로 문장이 시작하며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보기 1>에서 소개된 구글의 독감 관련 검색어 연구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1> 뒤에 바로 (라)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통해 (나) 앞에 '패턴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라)의 '특정 검색어 패턴'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라) 뒤에 (나)가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선지 ③ 탈락
(다):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하고, 검색 빈도수와 개인의 유전 정보, 진료 정보가 합쳐지면 세계 시민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독감 관련 검색어 연구 결과에 대한 구글의 해석이 드러나 있다.
(가)는 독감 관련 검색량과 실제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데 이는 (나)에 설명된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에서 비롯한 설명이다. 따라서 (나)-(가) 순으로 글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 선지 ①, ②, ③ 탈락

문 17. <보기>의 ㉠~㉣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꼭두쇠’는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꼭두쇠는 남사당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단원 가운데 ㉠규율을 어긴 단원에 대해 형벌을 명령하는 것도 꼭두쇠이다. 꼭두쇠가 ㉡노쇠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단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단원들의 ㉢추대로 새로운 꼭두쇠를 ㉣선출한다.

- ① ㉠-規律 ② ㉡-老衰
③ ㉢-推戴 ④ ㉣-先出

☆ 정답: ④ - 어휘 - 한자
☆ 정답 해설: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 선출(選出)이다. 뽑을 선, 出 날 출
선출(先出)은 ‘과일,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先 먼저 선, 出 날 출
☆ 오답 해설:
①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 규율(規律)이다.
規 법 규, 律 법 률
②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음’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 노쇠(老衰)이다.
老 늙을 로, 衰 쇠할 쇠
③ ‘윗사람으로 떠받들’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 추대(推戴)이다.
推 옮길 추, 戴 일 대

문 18. <보기>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러한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한 실제적 기준은 호흡이었다.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한배의 틀이 된 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방법을 선인들은 양식척(量息尺)이라고 불렀다. ‘숨을 헤아리는 자(尺)’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방법은 우리 음악에서 한배와 이에 근거한 박절을 있게 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시계가 없었던 당시에 선인들은 건강한 사람의 맥박의 6회 뒹을 한 호흡(一息)으로 계산하여 1박은 그 반인 3맥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 호흡을 2박으로 하여 박자와 한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 서양인들은 우리와 달리 음악적 시간을 심장의 고동에서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맥박을 기준으로 하여 템포를 정하였다. 건강한 성인인 보통 1분에 70회 전후로 맥박이 뛰는다고 한다. 이에 의해 그들은 맥박 1회를 1박의 기준으로 하였고, 1분간에 70박 정도 연주하는 속도를 그들 템포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래서 1분간 울리는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빠르기가 바로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인 안단테로 이들의 기준적 빠르기 말이 되었다.

- ①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서술 전개 방식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우리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하는 실제적 기준을 호흡이라고 언급한 뒤 이를 기준으로 우리 음악의 ‘양식척’ 방법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후 우리 음악의 한배 기준이 호흡인 반면 서양인들은 맥박을 기준으로 함을 비교 대조하며 우리 음악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제시된 글은 주장글이 아닌 설명글이며 또한 다양한 실례를 들고 있지 않다.
② 제시된 글에서 언급된 우리 음악의 예시와 서양의 예시는 대립되는 두 견해가 아니며 이를 검토한 제3의 견해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④ 제시된 글은 두괄식으로 우리 음악의 한배 기준을 호흡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통념을 반박하는 부분은 물론 해결책 모색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문 19.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디어의 첫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겨 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이다. 독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 짐으로써 학교 제도, 또는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기억의 관습에 가한 변화는 인쇄술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업적이었다.
인쇄술의 발달로 당연히 책이 양산되고 책값 역시 저렴해 졌을 뿐 아니라,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럽게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 정답: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보기>는 인쇄술의 발전이 지식 제도에 끼친 중요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단에서는 인쇄술의 발달이 독서에 의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면서 학교 제도와 기억에 대한 의존도를 낮아지게 하였다고 하였다. 둘째 문단에서는 인쇄술의 발달이 책의 접근성을 높였고 이는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가능케 했다고 하였다.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는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가 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과 검증으로 인해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공고한 위상이 흔들렸다는 변화를 드러낸 ①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② 학교 내 교사 권위에 대한 내용은 학교와 교사의 기능 변화를 언급한 첫째 문단 이후에 오는 게 적절하다. 둘째 문단 이후로는 적합하지 않다.
- ③ 둘째 문단에서는 인쇄술의 발달로 책값이 저렴해지고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은 지식의 대중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식에 대한 접근의 독점과 권력화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 ④ '주해자/주석자'는 저자의 글에 해석을 달거나 풀이를 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중요성이 반감되었다는 것으로 저자의 권위가 높아졌을지는 알 수 없으며,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와 '비판과 검증'은 독서 과정에 능동성이 증가한 것이므로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는 내용은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문 20.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 ③ 문경지교(勿頸之交)
-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 정답: ④ - 어휘 - 성어

★ 정답 해설:

'단순호치(丹脣皓齒)'는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 사자성어는 친구 사이의 정을 이르는 말이다.
단 붉을 단, 脣 입술 순, 皓 흰 호, 齒 이 치

★ 오답 해설:

-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귀를 이르는 말
芝 지초 지, 蘭 난초 란, 之 갈 지, 交 사귀 교
-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金 쇠 금, 蘭 난초 란, 之 갈 지, 契 맺을 계
- ③ 문경지교(勿頸之交):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勿 목뻔 문, 頸 목 경, 之 갈 지, 交 사귀 교